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1.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악 분별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 ② 본능의 명령에 따라 감각적 쾌락을 중시해야 합니다.
- ③ 영원불변하는 추상적 진리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 ④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⑤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2.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유일한 행위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이다. 단지 그 사람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의 자율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개인의 자율적 의지보다 공동체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수반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④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
- ⑤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이 때맞춰 농사짓도록 지도하고, 먹을 양식이 풍부하도록 해야 한다. 군주가 백성을 풍족하게 먹여 살리게 되면, 백성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王道) 정치의 출발이다.

- ① 군주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 ②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
- ③ 통치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 ④ 도덕보다는 엄격한 형법으로 통치해야 한다.
- ⑤ 무지와 무욕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4. 다음은 '사상가 맞추기 게임'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힌트	고려 시대에 활동한 불교 사상가입니다.
두 번째 힌트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조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힌트	돈오(頓悟) 이후에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한 점수(漸修)에 힘을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힌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고 주장했습니다.

- 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 ② 계율 실천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
- ③ 단번에 깨닫고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
- ④ 경전 공부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⑤ 반복적으로 닦아도 악한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5.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볼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 ②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 ③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 ④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 ⑤ 하늘과 인간을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보았습니다.

6. 다음 사상의 관점에만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눈[眼]과 사물이 인연이 되어 바르지 못한 사유와 어리석음이 생겨난다. 어리석음이란 곧 무명(無明)이며, 어리석음이 구하는 것을 일컬어 애(愛)라 하고, 애가 지은 것을 일컬어 업(業)이라 한다. 무명은 애의 원인이고, 애는 업의 원인이 되고, 업은 눈의 원인이 된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모든 사물에는 고정불변하는 본성이 있다.	✓	✓		✓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무명 때문이다.	✓		✓			✓
최고의 신이 만물의 생멸 변화를 주관한다.		✓		✓	✓	✓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결과가 생겨난다.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7.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 공동체를 결성한 시민들은 공공복지와 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권력을 정부에 위임한다. 그러한 권력의 위임은 정치 공동체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을: 시민들은 누구나 새로 설립된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정부에 복종하게 되고, 정부의 합법성도 인정하게 된다.

- ①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시민의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가?
 ②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강요해야 하는가?
 ③ 공공재의 혜택에 대한 대가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④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무조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8.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이 가진 도덕성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다. 우리가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배려의 윤리가 보여 주는 진실, 즉 인간관계와 책임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① 배려의 감정보다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② 보편적 원리의 적용만으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합리적 이성을 도덕성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④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의 배려와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
 ⑤ 타인과의 관계성보다 개인의 독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9.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쾌락은 수량화할 수 있다. 쾌락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파급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에만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 < 보기 >
 ㄱ. A: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ㄴ. B: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원리로 삼아야 한다.
 ㄷ. C: 개인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쾌락을 조화시켜야 한다.
 ㄹ. C: 정신적인 쾌락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한 수양 방법을 (나) 그림에서 찾아 옳은 지점만을 모두 거쳐 지나간 사람은? [3점]

(가) 작은 풀이든 큰 나무이든, 추한 사람이든 미인이든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하나이다. 나누어지면 이루어짐이 있고, 이루어지면 흠어짐이 있다. 모든 사물은 본래 나누어짐과 이루어짐과 흠어짐이 따로 없이 모두 통하는 하나이다.

(나)

- ① 갑: 출발점 → ㉠ → ㉡ → ㉢ → 도착점
 ② 을: 출발점 → ㉠ → ㉣ → ㉤ → 도착점
 ③ 병: 출발점 → ㉡ → ㉢ → ㉥ → 도착점
 ④ 정: 출발점 → ㉡ → ㉤ → ㉥ → 도착점
 ⑤ 무: 출발점 → ㉣ → ㉤ → ㉥ → 도착점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어야 한다. 수많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백성들이 생명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가지 않아야 한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어야 한다.
 을: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의 고차적 국면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다. 그때 사회는 자신의 깃발 위에 '각자 능력에 따라, 또 각자 필요에 따라!'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① 갑은 중용의 덕을 기르기 위해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의 도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국가가 시민의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책의 개선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은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가 제시한 '동굴의 비유'이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굴 안쪽 끝에는 동굴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사슬로 묶인 죄수들이 있다. 그들은 동굴 벽면에 투영된 그림자를 진짜 사물이라고 믿는다.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동굴을 빠져나가 바깥세상을 보게 된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 왔던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고 태양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그는 동굴로 되돌아와 죄수들을 동굴 밖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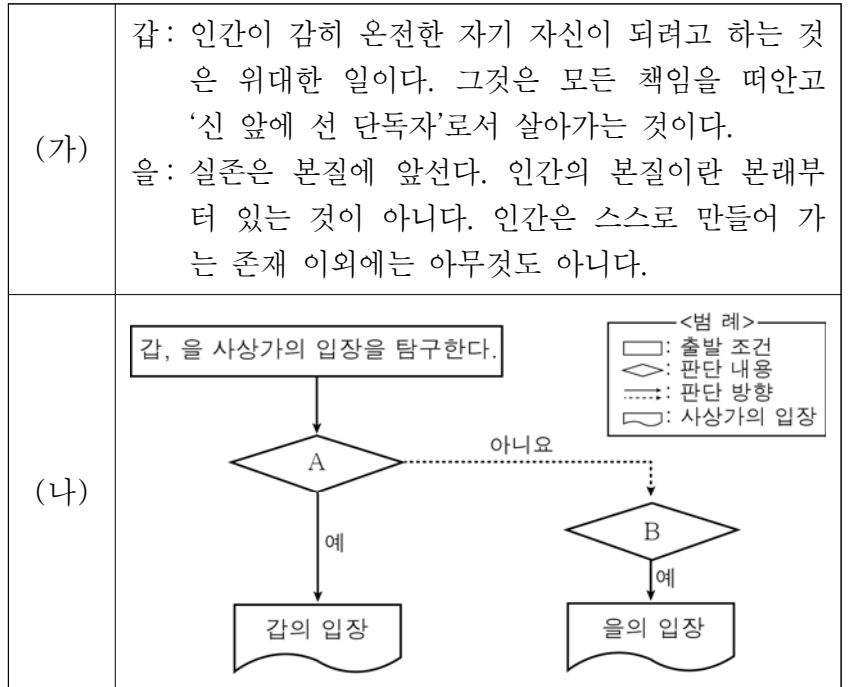
- ① 개인의 판단을 진리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이다.
- ② 이성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다.
- ③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④ 신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 ⑤ 좋은 행동을 습관화하여 지성적 덕을 갖춘 사람이다.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완전한 세계에 해당하는 것은 신이며, 불완전한 세계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이다.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을: 모든 사물은 신을 닮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삶의 목적은 신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 신앙과 이성 모두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 ① 갑은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라고 본다.
- ② 갑은 현세에서도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곧 신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신앙보다 신에 대한 지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14. (가)의 현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 ② A: 참된 실존의 회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결단해야 하는가?
- ③ A: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④ B: 다수가 지지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 ⑤ B: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구현해야 하는가?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도덕 법칙의 주체이며, 도덕 법칙은 인간의 자유가 지닌 자율성으로 인해서 신성한 것이다.
 을: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정념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내서는 안 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으며, ㉡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유용성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치들은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가치가 다른 여러 사회에서 모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되는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이유, 서로 다른 절차, 서로 다른 주체 등을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 ①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해야 한다.
- ② 각 사회가 지닌 분배 기준이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
- ③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 ④ 결과적 평등의 실현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⑤ 모든 사회에서 특정 가치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17. 한국 유학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사단은 순선(純善)한 정(情)이고, 칠정은 선악이 혼재된 정이다.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다.

— < 보 기 > —

ㄱ.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본다.
 ㄴ. 갑은 이와 기가 각각 발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사단을 기가 발한 정이라고 본다.
 ㄹ. 갑, 을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실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게. 그러면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네.
 을: 자기 자신과 신(神), 사물들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의 관점에서 인식하여 참되게 존재하기를 멈추지 말게.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네.

- ①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다.
- ②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은둔하는 삶을 지향한다.
- ③ 인격신을 믿고 종교적 계율을 충실히 따른다.
- ④ 자연법칙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 ⑤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악한다.

1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성(性)이 곧 이(理)이다. 마음에 있으면 성이라고 하고 사물에 있으면 이라고 한다. 성은 순수하고 옳으며 선한 것이다. 성에는 인의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A)	(B)				
		(C)				

(나) [가로 열쇠]
 (A): 사람으로서의 품격
 (C): '자연[物]'과 '나[我]'가 하나가 되는 경지

[세로 열쇠]
 (B): 개념

- ① 악한 본성을 바로잡아 선하게 바꾸는 것이다.
- ② 심신을 건강하게 하여 장수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③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에 도달하는 것이다.
- ④ 양지(良知)를 발휘하여 앎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 ⑤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철저히 탐구하는 것이다.

20.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에 비해 을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킨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가의 부(富)도 증진된다.
 을: 자유방임의 원리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 공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